

# ‘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정국 격랑 속으로

### 여야, 3일부터 필리버스터 통해 찬반 공방 벌여 유상범 “야당 주장 수사 외압, 정치적 선동일뿐” 박찬대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몰락의 길”

‘채상병특검법’이 4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또 다시 정국에 격랑이 몰아치고 있다.

국회의원은 앞서 지난 3일 오후 3시30분부터 ‘채상병특검법’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첫 주자로 연단에 올라 ‘채상병특검법’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라고 비판하며 발언을 시작해 7시57분까지 4시간18분간 단상을 지키며 토론을 이어갔다.

유 의원은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특검법 추진 절차와 여당이 제의된 특검 후보자 추천 규정 등 ‘독소조항’을 거론하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수사외압’은 법률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정치적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유 의원의 반대토론이 4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일부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착석한 채로 조는 모습도 포착됐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발언이 길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성인용 기저귀까지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 다음으로 단상에 선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56분간 특검법안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 중에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는 것 자체가 정쟁에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공수처는 작은기관이기 때문에 수사 의지가 있어도 수사 자체가 원활하지 않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가 직접 인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최순실 특검 때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이 없었다”면서 “그러자 최순실씨가 위원이 아니냐며 헌법



향의하는 국민의힘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24시간 경과 후 중단을 요구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소에 소를 제기했고, 그 당시에 헌재는 ‘문제가 없다’고 이미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면 파국과 몰락의 길에 놓이게 될 것임

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박 직무대행은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참여자가 100만명을 훌쩍 넘었다. 들불처럼

범 번지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특검법 수용 여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라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 순간에도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향을 하며 특검법 통과를 방해하고 있다”며 “말로는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밤새 주판알을 굴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전일 민주당의 이른바 “26만원 전 국민 지원법”(민생위기 극복특별조치법)을 겨냥해 “국민 1인당 약 26만원만 주나. 한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가볍고 얇은 경제 인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현금을 주자는 게 아니다. 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를 지급해 강제적으로 쓰게 하자는 것”이라며 “그러면 소비도 진작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며 세수도 늘어난다. 지원한 것보다 더 많은 세금으로 돌아온다”고 주장했다. /김진수기자

## 韓 수도권, 元·羅·尹 영남권...공약 차별화

### 국힘 전대 선거인단 80% 두 지역 분포...‘강점’ 어필 ‘약점’ 파고들기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의 선거운동 초반 공략포인트가 수도권과 영남권으로 차별화하는 모습이다.

4일 발표된 7·23 전당대회 선거인단을 보면 영남권에 약 40%, 수도권에 37%가 분포하면서 두 권역에서의 승부가 당 대표 경선의 향배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후보는 선거운동을 시작한 지

난달 28·29일 대구와 부산을 방문한 뒤로는 수도권 위주로 동선을 짜고 있다.

한 후보는 4일 유정복 인천시장과 면담하고, 인천 서구와 경기 고양을 찾았다. 전남에는 서울지역 구청장협의회 연구모임에 참석했고, 5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난 뒤 용산 등 서울지역 당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 후보의 이러한 수도권 중심 행보

는 자신이 내세운 ‘중도·수도권·청년’ 공략과 맞닿은 것으로 해석된다. 당권 주자들 가운데 가장 젊고, ‘제삼자 추천 채상병특검법’을 제시하는 등 중도층에 소구력이 있는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원외 당협위원장이 대거 몰린 수도권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지구당 부활’도 제시한 바 있다.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당의 전통적 지지층이 몰린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 등 영남권 공략에

더 주력하고 있다.

원 후보는 출마 선언 이후 영남을 다섯차례나 찾았고, 나 후보도 영남을 세차례 방문했다. 윤 후보는 이날까지 TK만 총 세차례 방문해 당원들을 만난다.

이들의 영남권 공략은 한 후보의 ‘약점’을 파고드는 측면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불화설’, 한 후보가 검사 시절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한 데 대한 정서적 반감을 자극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이들은 영남권 보수층의 ‘탄핵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배신자’ 프레임으로도 한 후보를 공격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국 당 대표 연임 도전...“이기는 정당으로”

### 4일 대표직 사퇴...“선거 후보 낼 곳만 낼 것”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4일 “조국 혁신과 정치 혁신을 위해 우리 자신이 세운 원칙에 따라 선거에 후보를 낼 곳은 내고 내지 않을 곳은 내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대표직 연임에 도전하겠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갖는 자리에서 “조국혁신당은 위성 정당이 아니

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월 창당대회에서 추대된 조 전 대표는 오는 20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출마하기 위해 이날부로 대표직을 사퇴했다.

조 전 대표는 ““이기는 정당, 이끄는 정당, 이루는 정당’이 제가 꿈꾸는 조국혁신당”이라며 “검찰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을 위해 누구보다 빠르고 강

하고 선명하게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대표로 연임하면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주거, 보육, 양육, 의료 등을 국가가 적극 보장하는 ‘사회권 선진국’ 개념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개헌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진수기자

## “철강 분야 국가첨단전략기술 포함”

### 권향엽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사진)은 4일 자신의 제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철강 분야를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포함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은 공급망 안정화를 비롯해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현저한 기술로 정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철강은 ‘산업의 쌀’로서 국가 기간 인프라의 필수 소재로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지금은 자동차, 휴대폰 등 일반 소비재까지 다양한 곳에서 사용 중이다.

이처럼 중요한 산업임에도 다른 대



체재로의 개발이 힘들고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이라는 특성상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같은 탄소중립 무역장벽 대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가첨단전략기술로 고시돼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분야와 함께 철강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법에 명시,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관련 기술과 생태계의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권향엽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강조해 온 내용”이라며 “철강산업도 고도의 기술 개발을 통한 스마트화·디지털화로 반도체·이차전지와 같은 첨단전략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